

국어 지문 분석법 및 문제 풀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서 파트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의 초반부에서 글의 관점을 딱! 잡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글을 읽으시는 중에는 그 관점에 따라서 글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점이 잡히면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앞문장의 이 표현이 뒷문장의 어떤 표현과 같은 말인지를 파악하시라는 말인데, 초반에 관점이 잡혀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 단락의 독해가 끝나게 되면 대개 한 단락의 중심 내용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 여러 문단들의 중심 내용을 하나로 엮으면 주제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영어 인터넷 수능에 수록된 지문을 예시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어나 영어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능에도 출제된 걸로 기억합니다만 인터넷 수능에 수록된 지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Many disciplines are better learned by entering into the doing than by mere abstract study. This is often the case with the most abstract as well as the seemingly more practical disciplines. For example, within the philosophical disciplines, logic must be learned through the use of examples and actual problem solving. Only after some time and struggle does the student begin to develop the insights and intuitions that enable him to see the centrality and relevance of this mode of thinking. This learning by doing is essential in many of the sciences. The laboratory provides the context within which one learns to see according to a scientific modality. Gradually the messy blob of a frog's innards begins to take the recognizable shape of well-defined organs, blood vessels, and the like. Similarly, only after a good deal of observation do the sparks in the bubble chamber become recognizable as the specific movements of identifiable particles.

처음부터 끝까지 재 진술로 도배된 지문입니다.

여기서 글의 초반부에서 관점을 잡고 들어간다는 말은, 첫 문장에서 'Many disciplines are better learned by entering into the doing'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첫 문장의 관점이 실용적 분야뿐만 아니라 추상적 분야에도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글을, 추상적 분야에서도 'entering into the doing'함으로써 'many disciplines are better learned' 된다는 관점을 갖고 읽겠습니다. Many disciplines are better learned와 같은 말들은 노란색으로, by entering into the doing과 같은 말들은 보라색으로 형광펜을 쳤고, abstract의 느낌이 나는 말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지문에서는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다가 끝나버립니다. The laboratory가 왜 보라색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 문맥을 타지 못한 것입니다. 문맥을 타기 위해서는 말씀 드렸듯이 처음에 잡았던 관점을 가지고, 뒷문장이 앞문장과 어떤 관련이 있을 까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영어 지문 분석은 여기까지 해두고, 여기서 사용했던 분석법을 토대로 이번에는 국어 기출 지문에 적용해보겠습니다. 2015 수능 국어 B형에 출제되었던 신채호 지문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1]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문장에서 아와 비아의 투쟁, 그 중에서도 투쟁이라는 말이 강하게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말을 갖고 다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채호가 투쟁만을 강조하지는 않았다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투쟁과 반대되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연대. 처음에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관점을 들고 왔기 때문에, 세 번째 문장에서 연대도 당연히 아와 비아의 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아 속의 비아를 제외한 아와 비아 속의 아 간의 연대입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제시됩니다.) 그럼 위와 같이 형광펜을 칠 수 있습니다. 식민지 민중은 우리나라의 민중들이니까 '아'이고, 제국주의 국가는 일본이므로 일본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은 '비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필자가 신채호의 사상에서 '연대'에 중점을 두고 말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린 전제 조건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신채호의 사상에서 '연대'를 이해하려면 '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오는 문단들을 1. '아' 개념에 대한 이해 2. 신채호의 사상(그 중에서도 연대에 초점)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의 자성,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딱 봐도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의 개념을 이해시키려는 문단으로 보입니다. '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신채호의 사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의 개념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문장을 보시면 아란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관점을 갖고 [2]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 고유성 유지, 항성 다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마찬가지로 비아와 마주 선,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 변성이 말들이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결국 이 문단에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아의 자성은 항성과 변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문장에서 갖고 들어갔던 관점과 똑같습니다.

[3]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이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첫 문장에서 관점을 잡고 들어가면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쪽 읽다 보면 여기서 핵심은 '대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성'이라는 개념과 '보편성'이라는 개념이 새로 등장하지만 명칭만으로도 뜻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어려운 재 진술도 없기 때문에 형광펜은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항성과 변성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바로 앞문장과 결국 같은 뜻입니다. 항성과 변성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말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어날 문제점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3]문단에서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아는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4]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역사적 주체 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아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첫 문장을 보면, 지금까지 아의 개념을 알아봤으니 이를 통해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에 대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읽으면 다음 문장은 때려죽여도 신채호의 인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겁니다.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의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신국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뒷문장에서 신국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문단에서 읽었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룬 대아가 신국민이라고 합니다. 동양주의에 반대했다는 말은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의 생존을 중요시 했다는 말이므로, 앞문장의 신국민(대아)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4]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내용은 **신채호는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5]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첫 문장을 보니, 신채호의 '아' 개념이 더욱 명료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채호의 더욱 명료해진 '아' 개념이라는 관점을 갖고 이번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채호의 '아' 개념이 더욱 명료해져서 아 속에도 비아가 있고, 비아 속에도 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1]문단에서 언급했던 아와 비아의 연대는 [5]문단에서 더 명료해진 '아' 개념에 따라, 아 속의 비아를 제외한 아와 비아속의 아 간의 연대라고 구체화 되었습니다. 결국 첫 문단에서 제시되었던 두 번째 관점 신채호의 인식, 그 중에서도 연대에 초점을 둔 인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심내용을 정리해보면, '아' 개념이 명료해지면서 신채호는 아와 비아 간의 연대를 지향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제 생각에는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거하는 주체는 항성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고,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하는 주체는 변성과도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제 생각일 뿐이니 여기까지 따라오실 필요는 없습니다.